

바라보기·해석하기를 넘어 수용하기로서의 다문화 현상

-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찬·반 논쟁을 중심으로 -*

신 응 철

주제분류 문화철학, 문화비평, 기독교 문화비평

주요어 다문화 현상, 동성애, 동성애 논쟁, 성(性) 정체성, 성적 지향, 기독교

요약문

이 글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현상을 그저 ‘바라보는’ 차원, 혹은 ‘해석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세계의 일부 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 혹은 그들을 ‘수용하는’ 차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다문화 현상의 한 예로서 ‘동성애’ 문제에 주목하였고, 우리 사회, 특히 기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관련 찬·반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수용하고 보듬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우선 ‘동성애’ 논의의 찬·반 논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서에 주목할 것이다. 성서에서의 동성애 장면을 확인해 보고, 동성애에 대한 해석상의 관점에 따라 나누어지는 비관론자와 옹호론자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에 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입장도 확인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 對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다문화 시대에 요청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의 초고는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추계 학술대회(주제: 한국사회와 문화적 세계화/2007.11.16. 이화여대 다락방)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들어가는 말: 생활세계로서 多文化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 농촌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多文化 문제이다. 농촌지역의 남성들과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성들 간의 국제 결혼이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이런 일들은 그들의 2세가 출생하면서 자녀교육의 문제, 언어생활과 생활방식의 문제 등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가 서서히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의 원인은 한마디로 다문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비단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통신매체나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현상을 그저 ‘바라보는’ 차원, 혹은 ‘해석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세계의 일부 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 혹은 그들을 ‘수용하는’ 차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다문화 현상의 한 예로서 ‘동성애’ 문제에 주목하였고, 우리 사회, 특히 기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관련 찬·반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수용하고 보듬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우선 ‘동성애’ 논의의 찬·반 논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서에 주목할 것이다. 성서에서의 동성애 장면을 확인해 보고, 동성애에 대한 해석상의 관점에 따라 나누어지는 비판론자와 옹호론자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에 대한 한

국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입장도 확인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 對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다문화 시대에 요청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문화 갈등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공존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동성애 찬·반 논쟁의 준거로 사용된 성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들 해석의 신학적 타당성의 문제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연구 영역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 부분은 관련 학회에서 신학적으로 해명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그렇기에 이 글은 다문화 현상을 문화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 문제를 다문화 현상의 한 예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문화비평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2006년에 발간된 잡지 『문화매거진 오늘』에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절대적 가치를 외친다. 기독교는 ‘무엇이든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면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판단의 마지막 권위가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덕분에 복음도 하나의 견해로 존중받는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의 견해 이상이며, 이 세상에 대해 유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적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¹⁾

이경직의 윗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독교적 신앙이 확고하면 할수록,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

1) 이경직, 『문화매거진 오늘』, 2006년 5.6월호.

된다. 그것은 기독교의 유일적 신앙관과 절대적 가치관의 영향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讓步)와 협력(協力)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구체적으로 동성애 문제에 적용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자.

2. 多文化 현상의 한 예로서 동성애, 그 찬·반 논쟁

한국의 개신교 목회자들은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목회 현장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 하나의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각 교단 소속의 여러 신학대학 교수들의 저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기독교계(적어도 개신교계)는 대단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굳이 ‘보수적(保守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도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²⁾, 나아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몇몇 국가에 비추어볼 때³⁾, 한

2) 최근 미국루터교회(ELCA)가 동성애 성직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ELCA는 지난 11일 시카고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동성애 목회자의 성직박탈 금지를 잠정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8월 15일 보도했다. ELCA는 교단차원에서 동성애 목회자의 징계여부에 대해 찬반을 물었고 총회 참가 목회자들은 538표 대 431표로 무징계를 지지했다. 이에 따라 ELCA 소속 동성애 목회자는 앞으로 목사 자격을 유지하고 개별교회가 청빙할 경우 설교를 할 수 있다. 필 소시 ELCA 대변인은 “총회는 동성애 목회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매우 중대한 결의다”라고 말했다.(국민일보, 2007.8.15일자 기사)

3) 1999년 프랑스 의회가 동성애 부부를 공인하는 시민연대 협약을 통과시켰고, 2000년 7월에는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의 동성애 부부가 결혼하였으며,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그해 캐나다에서는 인구 통계에 동성애 부부 항목을 포함시켰고, 드디어 2004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동성부부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동성간의 결혼을 인

국 교회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구성된 한국 기독교계가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좋은 예 하나가 있다. 지난 해 한국 영화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났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가 관객 천만 명 이상을 동원한 것이다. 수많은 관객들이 관람한 <왕의 남자>는 동성애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 점에서 동성애라는 말은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대중매체에서도 동성애자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이와 관련하여 트랜스젠더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 고조를 이루었다. 그러자 기독교 관련 문화 단체와 연구자들이 그 영화에 대한 일종의 문화비평을 쏟아 놓았다. 그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청소년들의 性 의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동성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한다는 논지의 비평이 지면을 온통 장식했다. 이 영화만 놓고 본다면, 외관상 일반 대중들과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엇박자의 모습 자체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이토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 그들의 그런 입장을 가능하게 한 성서적 근거는 무엇일까?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성서적 토대를 반드시 그들처럼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 속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나타난다. ①구약성서의 소돔 이야기(「창세기」 19:1-11)와 기브아 이야기(「사사기」 19장), ②「레위기」의 본문들(18:22, 20:13), ③신약성서 「로마서」의 본문(1:26-27), 마지막으로 ④바울의 두 서신인 「고린도전서」(6:9-10)와 「디모데전서」(1:8-11)에서 언급되고 있다. 여기 네 곳에서 언급되고 있

정하는 미국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이국현, 『기독교 윤리학의 이해』, 삼영출판사, 2004. 245쪽.)

는 동성애 장면은,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계의 상황도 이런 전통을 뒤따르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성서에 나타난 동성애 장면에 대해 위와 다른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체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거기에 속한다. 교육심리학 및 조직신학 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미국 웨스트조지아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헬미니악(Daniel A. Helminiak)⁴⁾과 정통 신학자 출신의 데릭 셔윈 베일리(Derrick Sherwin Bailey)⁵⁾가 대표적인 이들이다.

이제부터는 성서의 네 부분에 나타난 동성애 관련 장면들을 양 진영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구약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해석의 문제

성서에서 동성애 장면이 나타나는 첫 번째 경우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이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 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4)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Millennium Edition, 2000.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김강일 역), 해울, 2003.)에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옹호하는 논지의 주장을 펼쳐내고 있다. (이후 본문에서는 번역본의 쪽 수를 인용함.)

5) Derrick Sherwin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gmans, Green, 1955.)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창 19:1-11)

소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 본문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대체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으며, 통용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은 이러하다.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죄를 지었고, 비록 그 시도가 실패하기는 했어도 그들은 롯이 자기 집에서 대접하던 두 천사에게까지 그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sodomy 라는 말이 유래하게 되었다.⁶⁾ 그리고 Sodomite(소돔 사람)는 항문 성교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소돔의 죄는 남성간의 동성 성교 행위였다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동성 성교 행위 때문에 소돔의 시민들, 곧 소돔 사람들을 단죄하고 멸하셨다고 추측하게 되었던 것이다.⁷⁾

이와 같은 일반적인 해석 전통에 대해서 베일리는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1955)에서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우선 베일리는 위의 인용문에서 소돔 남자들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know)**”고 한 요구의 의미를 “우리가 그들과 **성 관계를 가지리라(have sex with)**”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거 없는 가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⁸⁾ 왜냐하면 여기서 “알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6) John R. W. Stott, *Same-Sex Partnership?*, Zondervan, 1998.(『존 스토티의 동성애 논쟁-동성간 결혼도 가능한가?』(양혜원 역, 홍성사, 2006. 이후 번역본 쪽수를 기입함.) 19쪽.

7)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40쪽.

yād (야다)는 구약성경에 943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는 10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성애자간의 성 관계를 의미할 때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절은 “우리가 그들과 알고 지내려고 한다”로 해석하는 쪽이 더 낫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그 소돔 사람들의 폭력은, 롯이 이방인의 신분으로 소돔 성에 머무는 주제에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데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롯은 “적대적인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⁹⁾ 두 명의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럴 경우, 소돔의 죄는 사적인 영역인 롯이 가정을 침해하고 손대접이라고 하는 고대의 규칙을 무시한 것이 된다. 롯은 그 남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요구를 그 만두라고 간청했다.

또한 베일리는 구약성서 어디에서도 소돔이 벌을 받아야했던 죄의 성질이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라는 암시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이사야는 소돔의 죄가 ‘위선’과 ‘사회적 불의’였다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이사야 1:10이하), 예레미야는 ‘간음’과 ‘사기’와 사회에 만연한 ‘사악함’을(예레미야 23:14), 에스겔은 ‘교만’과 ‘욕심’과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을(에스겔 16: 49이하) 꼽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베일리는 역사적 사실의 차원에서건, 계시된 진리의 차원에서건, 소돔 성과 그 이웃 주민들이 동성애 행위로 인해 멸망당했다고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¹⁰⁾

베일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헬미니아도 ‘소돔의 죄’의 핵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롯이 살았던 사회의 기본 규칙은 나그네들을 친절히 대접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셈 문화와 아라비아 문화에도 똑같은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 이 규칙은 매우 엄격해서 심지어 하룻밤을 묵는 사람이 적

8) 참고로, The New King James Version의 『한·영 성경전서』(1982)에는 ‘상관 하리라’를 ‘we may know them carnally’로 옮겨놓고 있다.

9) Derrick Sherwin Bailey, 같은 책, 4쪽.

10) Derrick Sherwin Bailey, 같은 책, 27쪽.

(敵)이라 할지라도 해치지 않았다. 따라서 롯은 그가 이해했던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옳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소돔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도록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소돔의 죄란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모욕’한 죄다. 나그네들을 욕보인 죄이며, 궁핍한 사람들을 ‘냉대’한 죄이다. 이것이 본래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이해한 소돔 이야기의 요점이라고 헬미니악은 주장한다.¹¹⁾

헬미니악의 관점에서 보면, 소돔 이야기의 핵심은 ‘성(性) 윤리’에 있지 않다. 소돔 이야기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아닌 성행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소돔 이야기에서 ‘섹스’와 ‘문 두드리기’는 둘 다 이야기의 주된 요점에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학대’와 ‘폭행’이 요점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를 단죄하는 것은 본문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헬미니악은 강하게 반발한다.¹²⁾ 그러면서 헬미니악은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에서 소돔을 인용한 적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위의 「마태복음」의 구절과 소돔 이야기 사이의 유사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그네를 거부하는 ‘단핍 마음’, 즉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악함’이었다고 헬미니악은 주장하고 있다.¹³⁾

(2) 구약 「레위기」의 본문 두 곳과 해석의 문제

구약성서에서 동성애 부분이 언급된 두 번째 부분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이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11)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42쪽.

12)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44쪽.

13)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48쪽.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방금 인용한 「레위기」의 두 본문은 ‘거룩’에 관한 규례에 나오는 부분이며, 이 규례는 「레위기」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들이 살던 애굽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 놓으신 가나안 지방의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의 관습이란 금지된 성 관계의 종류, 여러 가지의 성적 일탈,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 우상 숭배 그리고 갖가지 사회적 불의 등을 말한다.¹⁴⁾

이제 두 본문에서 동성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먼저 피터 콜먼(Peter Coleman)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 *Christian Attitudes to Homosexuality*(1980)에서 “가증스러운” 혹은 “혐오스러운”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¹⁵⁾는 원래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에서 그 단어는 혐오감 혹은 비난을 의미하지만, 성서에서는 주로 그 의미가 도덕이나 미학보다는 종교적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¹⁶⁾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본문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종교적 관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의 동성애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¹⁷⁾

한편 헬미니악은 「레위기」에 사용된 ‘망측한 짓’(가증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말은 히브리어의 *toevah*를 번역해 놓은 것이다. *toevah*는 ‘부정함’, ‘불결함’, ‘더러움’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한다. 문화적으로나 종교

14) John R. W. Stott, 같은 책, 22쪽.

15) 참고로, The New King James Version의 『한·영 성경전서』(1982)에는 ‘가증한 일’을 ‘abomination’으로 옮겨놓고 있다.

16) Peter Coleman, *Christian Attitudes to Homosexuality*, SPCK, 1980. 49쪽.

17) John R. W. Stott, 같은 책, 24쪽.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성애 옹호론자인 베일리의 경우, “「레위기」의 두 율법 모두는 의식(儀式)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 두 남자간의 일반적인 동성애 행위를 말하는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동성애 옹호론자들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식적으로 금지된 것을 나타내는 ‘금기(禁忌)’로 번역이 된다. 헬미니악에 따르면, 성서의 저자들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인 *zimah*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대신 *toevah*를 사용한 것에 주목한다. *zimah*는 종교적 이유나 문화적 이유로 반대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을 뜻한다. 그것은 불의 곧 죄라는 뜻이다.

그러나 분명히 「레위기」에서 남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 「레위기」에서는 그것이 종교 의식적인 위반, 곧 ‘부정함’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구약성서를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서』에 보면 이 사실이 더욱 확실해진다.¹⁸⁾ 『70인역 성서』에는 「레위기」 18장 22절의 히브리어 단어 *toevah*가 *bdelygma*로 번역되어 있다. 이 그리스어는 종교 의식의 위반을 뜻한다. 결국 「레위기」에서의 단어는 윤리적 함축이 들어있는 용어가 아닌,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함축이 든 용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성교 행위나 일반적인 동성 성교 행위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들은 분명 구약성서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섹스가 옳은지 그른지의 오늘날의 윤리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레위기」를 인용하는 것은 성서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헬미니악은 주장한다.¹⁹⁾ 그리고 헬미니악은 동성애를 바라보는 현재의 관습에는 분명히 광범위한 무지와 방임적 편견, 노골적인 불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뒤집어서 그 영향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해롭지 않는 관습의 문제이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에티켓 규칙과 훌륭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파괴적인 인습이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진정한 그릇됨과 단순한 금기의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각자를 존중하라는 것이다.²⁰⁾

18)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74쪽.

19)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77쪽.

(3) 신약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의 바울의 관점과 그 해석의 문제

신약성서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동성애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10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타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 하는 자나 우상숭배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음행하는 자며 남색 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
(딤후 1:10)

이 두 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 제시된 목록, 즉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고, 율법이나 복음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추한 죄의 목록들이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 중 한 무리는 malakoi(말라코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무리는 두 본문 모두에서 arsenokoitai(아르세노코이타이)라 불리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malakoi와 arsenokoitai라는 용어의 해석에 달려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malakoi는 분명히 동성 성교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arsenokoitai는 어떤 식으로든 남성 간 성행위를 가리키는 언급일지 모르지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분방하고 음란하며, 무책임한 남성간의 성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동성 성교를 단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²¹⁾

다시 되돌아와서 malakoi와 arsenokoitai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단어의

20)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78-79쪽.

21)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149쪽.

번역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2년 『개정판 표준 영역 성서』 Revised Standard Version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위의 두 단어가 결합하여 ‘동성애자’(homosexuals)로 번역되어 있다. 이 두 단어가 homosexuals로 사용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베일리는 지적한다. 즉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경우, 그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불의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버렸다.²²⁾ 한편 1977년 『개정판 표준 영역 성서』는 그 두 단어를 ‘sexual perverts’(변태 성욕자 혹은 성도착자)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1989년 『새 개정판 영역 성서』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male prostitute’(남창들)과 ‘sodomites’(남색 하는 자들)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그 이후의 다양한 현대의 번역본들에서는 그 단어들이 각기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데, 먼저 arsenokoitai는 ‘동성연애자’, ‘남색 하는 자’, ‘아동 성범죄자’, ‘변태’, ‘변태 동성애자’, ‘변태 성욕자’, ‘파렴치한 습관을 가진 자’로 번역되고 있다. 그리고 malakoi는 ‘미동(美童)’, ‘계집애처럼 유약한 자’, ‘소년 남창’, ‘여성스러운 남자’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다가 1985년 『새 예루살렘 영역 성서』 New Jerusalem Bible에서는 ‘방종한 자’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20세기까지 malakoi는 ‘수음하는 자’를 뜻한다고 여겨졌다. 이렇듯, 성서에 사용된 이들 단어의 의미는 늘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²³⁾

이런 사실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malakos(malakoi의 단수형)는 결코 동성 섹스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malakos라는 말로 도덕적 해이와 절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행동들을 단죄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 malakos를 ‘방종한 자’로 번역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영역 성서』가 정확한 의미를 제시한다고 그들은 판단

22) Derrick Sherwin Bailey, 같은 책, 39쪽.

23)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152쪽.

한다.²⁴⁾ 다음으로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arsenokoitai라는 이 말은 기원후 1세기에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그리스도교에서 남자들 사이의 착취적이고 음탕하며 방자한 섹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성서의 구절들이 반대하는 내용 역시 남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행위 전체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동성애의 ‘남용(濫用)’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다. 성 문제 전반에 걸쳐서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보살핌, 책임 있는 나눔이다. 이 점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들이라고 이들은 생각한다.²⁵⁾

(4) 신약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관점과 그 해석의 문제

마지막으로 동성애 부분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타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逆理)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27)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묘사한 대목이다. 그들은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나름의 도덕적 감각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악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억압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대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동했다.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한 생각과 퇴폐적인 관습을 내버려 두셨고, 그러한 관습에는 ‘부자연스러운’ 성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견해를 달리한다. 먼

24)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156쪽.

25)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167쪽.

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역리적 성향’(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²⁶⁾과 ‘역리적 행위’(이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성애 행위에 탐닉하는 사람)가 별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긴 했지만, 여기서 그가 정죄하고 있는 것은 후자이지 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들은 강조한다.²⁷⁾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버려두신’ 사람들의 무모하고 뻔뻔하고, 방탕하고, 난잡한 태도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동성애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셈이다.²⁸⁾

이런 관점에서 헬미니악은 신약성서가 성결(聖潔)에 관한 관심사나 그 밖의 관심사들을 이유로 동성간 성 행위 자체를 단죄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동성간 성 행위에 수반될 수도 있는 학대와 착취를 금지하는 데 오히려 관심이 있었다고 결론짓는다.²⁹⁾

3. 다문화 수용하기, 멀고도 힘든 길

우리는 지금까지 다문화시대의 한 현상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살펴보았다. 확실한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 교회 및 신학교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여전히 죄(罪)의 범주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서, 개신교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중의 하나인 사랑의 교회 원로목사 옥한흠³⁰⁾, 장

26) 참고로, The New King James Version의 『한·영 성경전서』(1982)에는 ‘역리로’를 ‘against nature’로 옮겨놓고 있다.

27) John R. W. Stott, 같은 책, 25쪽.

28) John R. W. Stott, 같은 책, 26쪽.

29) Daniel A. Helminiak, 같은 책, 91쪽.

30) 옥한흠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귀국하던 1978년 미국의 모 장로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자는 안건을 총회에 내놓아서 마스크를 흥분시킨 적이 있었다. 나도 그때 라디오 실황을 들으면서 **통탄해 하던 기억이 난다.**” 옥한흠, 「크리스천의 성 윤리」, 『현대와 크리스천의 윤리』(홍정길 편집), 도서출판 엠마오, 1987. 17쪽.

신대 기독교윤리학 전공의 임성빈³¹⁾, 감신대 기독교윤리학 전공의 박충구³²⁾, 그리고 삼육대 교회사 전공의 이국헌³³⁾, 백석대 기독교철학 전공의 이경직³⁴⁾이 대표적인 경우다. 학계와 교계에 두텁게 퍼져 있는 이러한 견해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기독교인들과는 구분되는 영원한 ‘그들’, 즉 우리와는 다른 ‘타자’(他者)로 인정하고 배제하도록 하는 태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동성애 문제의 찬·반 논쟁은 성서적 근거에 관한 논쟁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동성애와 동성애자가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동성애

- 31) 임성빈에 따르면, 성서에서는 결혼과 이혼, 매매춘과 동성애가 등장하지만,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인간의 삶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장로회신학대 출판부, 2004. 152쪽. 임성빈, 「성경으로 본 동성애」, 『빛과 소금』, 1996년 6월호 참조.
- 32) 박충구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면서 의학적 규명을 통하여 동성애를 개인의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았던 과거의 이해가 수정되어 일종의 자연적인 성향으로 규명되면서 이성애적 규범만으로 인간의 성윤리를 규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해들은 전통적인 성윤리에 신뢰를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제도적 성윤리를 넘어서는 윤리적 성윤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충구, 『21세기 문명과 기독교윤리』, 대한기독교서회, 1999. 215쪽. 하지만 박충구는 다른 기독교윤리학자들에 비해 동성애 문제를 이성애 중심의 성윤리가 낳은 폐단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33) 이국헌은 이렇게 말한다.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신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이국헌, 『기독교 윤리학의 이해』, 삼영출판사, 2004. 253쪽.
- 34) 이경직은 이렇게 말한다. “동성애가 이성애와 똑같이 사랑의 한 유형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가 포스트모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3세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나름대로의 고유한 질서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다원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졌던 가치도 하나의 가치로서 인정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적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경직, 『문화매거진 오늘』, 2006년 5·6월호.

'(Homosexuality)라는 단어³⁵⁾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의 여러 차원을 인지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가 있다. 인간의 성은 네 가지의 복합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출생 시의 성'(natal sex), 즉 태어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해 주는 신체적, 생물학적 특징, 둘째로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즉 한 사람이 자신을 성적 존재로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성적 자아 개념, 셋째로 '성 역할'(gender role), 즉 특정한 문화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차원의 성적 정체성,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즉 한 개인이 누구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가 하는 방향성을 지칭하는 말³⁶⁾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성애'는

35) 동성애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homosexuality이다. 이 말은 그리스어의 homo (동일)라는 단어에서 기원된 것으로서, 동일한 성에게서 육체적, 감정적 사랑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먼저 여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는 레즈비언(lesbian)이 있다. 이 말은 레스보스(Lesbos)라는 그리스 섬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곳은 기원전 6세기경 여성간의 사랑을 예찬한 시인으로 유명한 사포(Sappho)라는 한 선생이 젊은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운 곳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단지 레스보스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던 레즈비언이란 용어가 점차 사포와 그녀의 제자들처럼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레즈비언의 경우 성적 행위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여성을 '트리베이드'(Tribade) 혹은 '부치'(Butch)라 부르고, 여성 역할을 하는 여성을 '팜프'(Femme)라고 부른다.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는 게이(gay)가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게이라는 이 말은 동성애자 사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호모섹슈얼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게이의 경우, 성적 행위에서 여성의 역할을 '페어리'(Fairy) 혹은 '바텀'(Bottom)이라 부르고, 남성의 역할을 '탑'(Top)이라 부른다. 게이라는 말이 미국 사회에서 호모섹슈얼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그 긍정적인 의미를 공유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반'이라는 말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다. 이반이라는 말은 1960~1970년대 서울의 낙원동의 동성애자 공동체에서, 일반(一般)이라는 말에 반하여 자신들을 이반(二般, 異般)이라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이 말은 점차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시작될 무렵,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동성연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꾸는 언어 교정 작업과 함께 폭넓게 알려지게 되었다.(에릭 마커스, 『커밍아웃-동성애자에게 누구나 묻게 되는 300가지 질문과 대답-』, 박영철출판사, 2000. 21쪽.)

36) Judith K. Bailiwick & Jack O. Balswick, *Authentic Human Sexuality*, Inter Varsity Press, 1999. 잭 볼스윅 · 주디스 볼스윅, 『진정한 성-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관점과 성경적 원리의 통합-』 (홍병룡 역), IVP, 2002. 21쪽.(이후 번역본의 쪽 수를 표기함.)

하나의 '성적 지향'이다. 성적 지향은 크게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아주 어릴 적 스스로 인식하기 이전에 확립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와 관련하여 잭 볼스윅과 주디스 볼스윅³⁸⁾은 『진정한 성-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문화적 관점과 성경적 원리의 통합』 *Authentic Human Sexuality: An Integrated Christian Approach*(1999)에서 동성애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섯 가지의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다. 사회학습이론의 입장³⁹⁾, 신(新)정신분석학의 입장⁴⁰⁾, 생물학적 입장(유전적, 체질적, 내분비학적, 동물 행동학적 입장)⁴¹⁾, 통합모델의 입장⁴²⁾, 상호작용적 발달의 입장⁴³⁾, 인간 행위자의 입장⁴⁴⁾이 그것인데, 이 중에서 그 어떤 설명 모델도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37)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Millennium Edition, 2000. 다니엘 헬미니악,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김강일 역), 해울, 2003. 9쪽.

38) Judith K. Bailiwick & Jack O. Balswick, 같은 책, 21쪽.

39) Bandura, A.,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 (4). 1978. 345쪽. 그리고 Bandura, A., Behavior theory and the models of man. 1974. *American Psychologist* (December). 1974. 865쪽.

40) Bieber, I., *Homosex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62. 그리고 Bieber, I., *Psychodynamics and sexual object choices: A reply to Dr. Richard C. Friedman's paper*.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2: 1976. 366-369쪽. 그리고 Wolff, C., *Love between wome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1.

41) Herrn, R., On the history of biological theories of homosexuality used to justify homosexuality. Special issue: Sex, cells, and same-sex desire: The biology of sexual preference. *Journal of Homosexuality* 28 (1-2). 1995. 31-56쪽. 그리고 Dorner, G., Stressful events in prenatal life of biand homosexual men. *Experimental and Clinical Endocrinology* 81. 1983. 83-87쪽.

42) Byne, W., and B. Parsons., Human sexual orientation: The biological theories reappraise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1993. 228-239쪽.

43) Judith K. Bailiwick & Jack O. Balswick,, 같은 책, 104-105쪽.

44) Judith K. Bailiwick & Jack O. Balswick,, 같은 책, 91-107쪽.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설명 모델들은 크게 보면 사회학습적 관점과 생물학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계에서는 대체로 사회학습적 관점을 지지하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생물학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성적 지향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 속에서 생물학적(유전적, 체질적, 내분비학적, 동물 행동학적 입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 개인은 그러한 삶의 방식(동성애 성향)을 좇아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 달리, 한 개인의 성적 지향이 사회학습적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면, 성적 지향 자체보다는 성적 지향을 발휘했을 때 부딪히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관점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인생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필자가 볼 때,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길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적어도 성적 지향에 대한 유전자 지도까지도 확인될 수 있는 그 시대에나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이 강조될 뿐이다. 결국 각자 “우리의 입장” 혹은 “그들의 입장”만을 주장할 뿐, 타협이나 합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포스트모던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에조차도 기독교계에서는 여전히 ‘절대적’ 가치만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원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을 뿐이다.

4. 맺는 말: 다문화, 바라봄에서 포용함으로

이런 현실 앞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아가 다문화 현상을 접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청되는 것일까? 나는 이 물음에 대한 좋은 안내를 2007년 한 일간지에 게재된 김용석의 칼럼에서 찾아보았다.

차별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타인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는 친밀한 인식과 구체성을 가져야만, 타인의 문제, 그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를 사랑의 차원으로 이끄는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한 사람’으로 본다.(중략) 그래야만 그에게 ‘사회가 지어준 이름’인 장애인, 트랜스젠더, 빈자, 수입 노동자, 흑인, 백인 등의 껍질을 벗겨 버리고 만날 수 있다. 장애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가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⁴⁵⁾

위에서 인용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김용석은 진정한 ‘인권 감수성’이라 말하고, 이것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엄청난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일까? 그에 따르면, 윤리란 사회적 불순물을 정화하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인간의 의미이다. 고인 물이 되어버린 관습,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떨쳐 버리고 ‘의식의 알몸되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도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틀과 모든 색깔과 모든 덧붙임과 모든 사회적 이름과 훈장을 떨쳐 버리고 나의 알몸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나는 네게 덧씌워진 것이나 네게 색칠된 것이 아닌, 너의 황홀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리란 자기 주체화 작업이자, 동시에 타자의 주체화 작업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차별을 넘어서는 윤리적 가치가 있다고 김용석은 강조하고 있다.⁴⁶⁾

김용석의 이러한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늘 ‘정상(正常)’과 ‘비정상(非正常)’의 사이에서, 다수(多數)와 소수(少數) 사이에서, 보편(普遍)과 특수(特殊)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을 강요받는다. 언제나 고민의 해결책은 기준과 잣대를 무엇에 두느냐

45) 김용석, 「김용석의 대중문화로 철학하기」 중, “차별 해소? 의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라”. 한겨레신문, 2007년 8월 4일(토). 15면.

46) 김용석, 같은 글.

냐 하는 점에 있다. 한 때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 “내 너의 사랑은”이 1970년대 후반에 크게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다. 그 노래를 부른 여러 가수들 가운데 “따로또같이”라는 팀이 있다. 나는 여기서 “따로또같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긴요하게 요청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피부색에 대해, 문화에 대해, 가치에 대해, 종교에 대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그러한 인정(認定)이야말로 문화공존의 첫 디딤돌이 된다고 판단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차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차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타자에 대해 배제(排除)와 차별(差別)을 가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은 타자와의 연대(連帶)와 상생(相生)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따로또같이”의 방식에 주목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숭실대학교)

참고문헌

- 김용석, 「김용석의 대중문화로 철학하기」 중, “차별 해소? 의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라”. 한겨레신문, 2007년 8월 4일(토).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새영어흠정역판, 1985.
- 박충구, 『21세기 문명과 기독교윤리』,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옥한흠, 「크리스찬의 성 윤리」, 『현대와 크리스찬의 윤리』,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이경직, 『문화매거진 오늘』, 2006년 5·6월호.
- 이국현, 『기독교 윤리학의 이해』, 삼영출판사, 2004.
- 임성빈, 「성경으로 본 동성애」, 『빛과 소금』, 1996년 6월호.
-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장로회신학대 출판부, 2004.
- Bandura, A., Behavior theory and the models of man. *American Psychologist*(December). 1974.
- Bandura, A.,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 (4). 1978.
- Bieber, I., *Homosex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62.
- Bieber, I., *Psychodynamics and sexual object choices: A reply to Dr. Richard C. Friedman's paper.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2: 1976.
- Byne, W., and B. Parsons., Human sexual orientation: The biological theories reappraise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1993.
-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Millennium Edition, 2000.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김강일 역), 해울, 2003.)
- Derrick Sherwin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gmans, Green, 1955.
- Domer, G., Stressful events in prenatal life of biand homosexual men.

- Experimental and Clinical Endocrinology* 81. 1983.
- Hamer, D. H.,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5119). 1993.
- Herm, R., On the history of biological theories of homosexuality used to justify homosexuality. Special issue: Sex, cells, and same-sex desire: The biology of sexual preference. *Journal of Homosexuality* 28 (1-2). 1995.
- John R. W. Stott, *Same-Sex Partnership?*, Zondervan, 1998. (『존 스토티의 동성애 논쟁-동성간 결혼도 가능한가?』 (양혜원 역), 홍성사, 2006.)
- Judith K. Bailiwick & Jack O. Balswick, *Authentic Human Sexuality*, Inter Varsity Press, 1999. (『진정한 성』 (홍병룡 역), IVP, 2002.)
- Peter Coleman, *Christian Attitudes to Homosexuality*, SPCK, 1980.
- Wolff, C., *Love between wome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1.

On the Multi-Culture: Seeing, Interpretation, Reception
- Focusing on the debate on the Problem
of Homosexuality in Christian Circle -

Shin, Eung-Chol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reasonable attitude in multi-cultural era. There are many problems in multi-cultural era because of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I think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conflict of culture. So we are interested in this fact. Summarizing this problem, does universal culture can be co-exist with special culture?

Through discussing about homosexuality in christian circle in Korea, we will find an answer that problem. The reason why I will deal christian approach in this article has two aims. Firstly, to recognize problem of 'plurality', secondly, to find out a clue in terms of inspect of co-exist instead of conflict in multi-cultural era.

In this context, First of all I will discuss about the debate on homosexuality in christian circle. For this problem, I will confirm the scene of homosexuality in the Bible, and I will discuss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homosexuality. And then we will deal the general position of christian circle in Korea. Finally we will think about a reasonable way of life in multi-cultural era.

Key Words: Cultural era, Multi-Culture, Homosexuality, Sexual Orientation, Bible.

신웅철 e-mail: shin0308@ssu.ac.kr